

#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보고(3차) 결과

## □ 업무보고 개요

- 목 적 : 본부장 등 오찬 및 서울디자인연구소 사업계획 보고 등
- 일 시 : 2018. 2. 13.(화) 11:40~18:00
- 장 소 : 재단 9층 대회의실 등
- 참 석
  - 서 울 시 : 대표이사 직무대행, 디자인정책과장, 디자인기획팀장
  - 재 단 : 박삼철 본부장, 신윤재 센터장, 권희대 팀장, 기획경영팀

## ○ 진행순서

연번	시간	내용	비고
1	11:40~13:20	본부장 등 오찬	서울시, 단장, 본부장, 기획경영팀장, 경영지원팀장
2	13:20~14:30	이 동	-
3	14:30~15:20	서울디자인연구소 보고	박삼철 소장, 신윤재 센터장, 권희대 팀장
4	15:20~15:40	강 평	대표이사 직무대행
5	15:40~18:00	업무관계 회의	서울시 디자인정책과, 단장, 기획경영팀장, 경영지원팀장

## □ 회의록

○ 보고시간: 14:30~15:40

○ 서울디자인연구소

- 연구소는 얼마 전까지 스마트모빌리티 연구를 시행한 부서임

### 〈시민디자인연구센터〉

- 환승지도 연구결과로 그 이후에 사인 적용하는 연구 시행 예정
- 버스노선도 바꾸는 것은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환승역 체계와 영문 명칭, 가로쓰기 방식 등이 바뀌었음.
- 혁신적인 것은 방향표시하는 젊은 친구임(?)
- 움직이는 미래 책은 스마트모빌리티의 사업결과를 시민 눈높이로 정리하는 것으로 GS, 코트라 등이 정보를 요청하고 있음.
- 연구 실행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것은 올해 주력사업임.
- 서울디자인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은 예산을 9천만원으로 연구용역 비용임. 작년 4개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임.
- 시민창의콘텐츠 송출시스템은 유리캔버스 회사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로 옥외광고물법 등 문제가 있어서 현재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시민디자인연구단 등의 사업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.

### 〈디자인출판팀〉

- 디자인 자산은 무엇인지?

서울시에서 선정한 50가지 디자인 자신이 있음. 건축과 역사적인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것, 본 보고의 유통형 디자인 자산과는 구분됨

- 서울디자인트렌드리포트 사업은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임. 작년 영크리에이터는 몇 명이 진행함, 업무는 어떻게 주었는지? →책 1종 당 적게는 5명, 많게는 10여명이 진행함. 전별로 업무가 주어진 형태였음.
- 1인 출판 즉, 독립출판사업을 지원 검토

## 〈총 강평〉

→ 디자인연구소 이전부터 궁금하였는데 이제 해소가 됨.

- 연구소는 올해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하며 아직 헛갈림. 새 대표님 오셔도 휘둘리지 않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야 함. 디자인연구소는 '라비키움' 기능이 있어야 함. 사업적으로 홍보와도 중첩되고 일에 따라서는 사업부서와의 연계됨. 통합 전략 부분은 기획 기능까지 있는 것 같음. 조직 설계 시 반영해야 함. 인원, 예산 한계가 있으니 정리 및 설계가 필요함. 재단과 정책과의 협업체계를 계기로 긴밀히 진행함. 사업별 이니셔티브를 누가 가질 것인지는 같이 고민해야 함.
- 연구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디자인 시민 참여, 아이디어 도출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. 시민이 아쉬워하는 역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함.
- 스마트 모빌리티는 그대로 사장시키기엔 아까움. 안상수 이사장의 사업이지만 흐지부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검토. 사람이 바뀐다고 사라지면 안 됨. 책 만 만드는 것으로 정리되긴 부족해 보임.
- 서점 판매는 꼭 DDP가 아니더라도 책을 찾을 때 살 수 있도록 해야 함.
- 어제 회의에서 현장에서 책을 팔도록 이야기 했음.
- 영 크리에이터는 두가지 이슈가 있음. 첫째로는 시민소통기획관과 연계하는 것임. 인재들이 많음. 동영상 전문가 등 자원이 많음. 파워블로거 등임. 둘째로는 뉴딜일자리인데 영크리에이터도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. 페이지도 괜찮아서 예산 절감 가능.

- 디자인트렌드리포트 등 10대 이슈 발표는 재단 전체는 물론, 정책과와 같이 진행해야 함. 서울시 전체적인 방향과 맥락을 같이해야 함. 페스티벌과의 연계는 잘 함. 시민디자인 지식 큐레이션은 4,700만을 들어서 결과물은 뭐가 되는지?  
→ (매달 이슈를 줘서 공모를 받음. 전문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받고 책으로 묶고 함.) 그러기엔 예산이 너무 적음.
- (출판팀은 혼자하는 것이 아닌 큐레이션으로 사업팀과 교육팀의 예산을 쉐어함). 24시간 디자인을 제안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함. 실제로 많이 필요한 것을 전문가를 붙이도록하며 실행력이 중요함. 연구소보다 큰 개념임. 디자인정책과와 고민 후 실행할 것. 이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.
- 재단의 중요한 역할은 공공디자인을 선도하는 것임. 시민 입장에서 안전, 재난 디자인 등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이 되고 중앙정부에 채택이 되는 프로세스가 중요함. 이런 쪽으로 사업 고민하도록.
- 디자인 지식 큐레이팅은 퍼블릭한 역할로서 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화가 필요함. 온라인과 앱으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.
- 연구소의 정체를 알았음. 예산은 어떤 구조인지? (전체 15억 예산이며 외주 용역비로는 절반정도 진행 예정)